

燥病의 分類에 따른 原因과 證狀에 對한 考察

圓光大學校 益山韓方病院 呼吸器內科學教室

崔炳甲 · 李始炯

I. 緒論

燥는 五行上 金에 屬하며 秋의 主氣이다. 內經 素問¹⁾에는 “燥勝則乾”이라 하여 燥氣가 勝하면 乾燥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燥病은 自然界의 乾燥症狀과 類似한 症候를 보인다 하겠다. 劉³⁾는 “諸澁枯涸 乾勁皴揭 皆屬于燥”라 하여 처음으로 燥를 十九病機에 包含시켰으나 歷代로 燥邪는 六淫으로서는 風寒濕과 같은 邪氣처럼 比重 있게 다뤄지지 못하였고 燥病은 주로 內的要因으로 因한 病症으로 다뤄지다가 喻¹¹⁾가 秋燥論을 強調한 뒤 外的 邪氣로서의 燥氣에 대한 研究가 本格的으로 發展되었으며, 그 후 溫病學派를 거쳐 體系의으로 研究되었다. 現代에는 燥邪가 外邪로 比重있게 다뤄지고 특히 急·慢性 氣管支炎과 肺炎 등의 呼吸器 疾患에서 重要時되고 있다²⁰⁻²¹⁾.

崔²³⁾는 陽氣爲主에서 相對的으로 陰精의 保存이 重視되어 가는 韓醫學의 흐름에 비추어 燥는 病因으로서의 意味가 強調되어질 것이라 고 하여 燥邪의 重要性을 強調하였으나 이 또한 內的要因으로서의 燥를 強調한 것이다. 따라서 燥病은 아직까지 內·外·寒·熱의 區分이 확실히 體系化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本人은 歷代 文獻을 통하여 燥病을 體系의으로 分類하고 그 原因과 證狀을 상세히 研究한 바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1. 黃帝內經素問¹⁾

燥勝即乾

歲金太過 燥氣流行

腎苦燥 急食辛以潤之 開腠理 致津液通氣也

2. 類經²⁾

燥勝者 爲津液枯涸 內外乾澁之病

3. 劉河間傷寒三六書³⁾

燥類

諸澁枯涸 乾勁皴揭 皆屬于燥 陽明燥金乃肺與大腸之氣也

由水液衰少而燥澁氣行壅滯而不得滑澤通利

或風熱勝濕爲燥

枯不營生也 涸無水液也 乾不滋潤也 勁不柔和也

消渴論

燥 燥燥燥乾者 令肺之本 燥金受熱 化以或燥澁也 兼火熱致金衰 耗液而損血 鬱而成燥者 由風能勝濕 熱能耗液

4. 丹溪心法附餘⁴⁾

消渴

燥乾者 金肺之本 燥金受熱化 而成燥澁也 兼火熱 致金衰 耗液而損 血鬱而成燥者 由風能勝濕

熱能耗液 … 金燥 雖屬秋陰 而其性異於寒濕 而反同於風熱火也 又加大便乾澀 乃大腸受熱 化成燥澀

燥結

燥結之症 … 或因風寒邪從外入 或因七氣自火 內起 … 或因病久 飲食少進 或因年高 將息失宜 此是血液枯涸

5. 證治準繩⁵⁾

傷燥

夫夫金為陰之主 為水之源 而水燥氣 寒水生化之源竭絕 瘵上而不能灌溉周身 營養百骸 色乾而無潤澤皮膚 滋生毫毛者 有自來矣 或大病而剋伐太過 或吐利而亡津液 或豫防養生 悞 餌金石之藥 或房勞致虛 補虛燥劑 飲食過厚 辛熱太多 醇酒炙肉 皆能偏助狂火而損害真陰 陰中伏火 日漸煎熬 血液衰耗 使燥熱轉甚為諸病

6. 古今醫統大全⁶⁾

風熱火同陽也 寒燥濕同 陰也 又燥濕小異也 然燥金雖屬秋陰而 異於寒濕 故反同其風熱也 故火熱盛則金衰而風生 綠風能勝濕 熱能耗液而反寒 陽實陰虛 則風熱勝於水濕而為燥也 凡人風病 多因熱甚 而風燥者 為其兼化以熱為主也

大便秘結 或 消渴之類為燥病之裡證 身熱 皮膚燥澀乾疥 瓜桔之類為燥病之表證

7. 奇效良方⁷⁾

病在外則皮膚皴揭 在上則咽鼻焦乾 在中則水液衰少而煩渴 在下則腸胃枯涸 津不潤而便難 在手足則痿弱無力 在脈則細澀而微 此陰血為火熱所上也

凡凡人風病多因熱甚而風 燥者為其兼化 以熱為其主也 然陽實陰虛而風熱太甚 以勝水濕 因而成燥 風熱燥鬱 甚于裡 故煩滿而 或閉結也

8. 醫學正傳⁸⁾

所謂 中風筋緩者 因其風熱勝濕而為燥之甚也 然筋緩不收而痿痺 故諸臍郁病痿皆屬於肺金 乃燥之化也 如秋深燥甚 則草木萎落而不收 病之象也

9. 醫學入門⁹⁾

燥有內外 屬陽明

外因 時值陽明燥令 久晴不雨 黃埃 蔽空令人 狂惑 皮膚乾枯屑起

內因 七情火盛 或大病 吐利 或金石燥血 或房勞竭精 或饑飽勞逸損胃 或炙燻 酒醬厚味 皆能偏助火邪 消燦血液

燥結 因肝木自旺 或肺風入大腸者 曰風燥 因臟腑積熱 或 久病鬱熱者 曰熱燥 因脾胃伏火 使閉不食者 曰血燥 陰虛火燥者 曰虛燥

10. 徐靈胎醫書 全集¹⁰⁾

燥本內因關乎 血液良由水不涵肝則燥氣生於筋脈 血不榮經則燥症見乎形軀縱有 風燥寒燥火燥之辨 或屬外因 亦關內涸 不能滋榮經藏 潤澤皮毛而諸燥風起 散見各經

11. 醫門法律¹¹⁾

秋燥論

燥勝即乾

有乾于外而 皮膚皴揭者 有乾于內而精血枯涸者 有乾于津液而營衛氣衰 內燥而皮著于骨者

隨其大經小絡 所屬上下中外前後 名為病所

12. 臨證指南醫案¹²⁾

燥為乾澀不通之疾 內傷外感宜分

外感者 由於天時風熱過勝 或因深秋偏亢之邪 始必傷人 上焦氣分

內傷者 乃人之本病 精血下奪而成 或因偏餌燥劑所致 病從下焦陰分 上焦治氣 下焦治血

13. 宋元明青名醫類案¹³⁾

中中氣素虛 形寒飲冷 遏伏暑潛之火 蘊於膈中 劫津耗液盡 從燥化 肺氣不能下輸 腸胃燥滿不行 下之遂逼血下行 血既下奪 亦云竭矣 陰不配陽 汗從外泄即上厥 上厥下竭 肺經獨受燥累

14. 證治百問¹⁴⁾

燥

津津精 血液 涸竭爲病 夫精血之不足 本五臟之生氣先虛 不能化生精血 精血衰少 又不能濟養津液 所以成燥 大概虛爲本寒與爲標 所見燥症各隨臟腑之虛實而現

故有表裏寒熱虛實之不同 今分而主治

表寒燥症

血因氣寒而凝 液因氣寒而燥以致 皮膚乾皺指甲斷裂形神枯槁 其燥在表 不在裏

表熱燥症

血枯內熱則金燥液渴而皮膚皴裂 搔之屑起 血出痛楚指甲厚圻 肌肉乾勁 筋急而拘攣也

裏寒燥症

大便秘結 難解 及解而不甚 燥硬喜食溫熱之物 小便清長 面紅不熱 氣促有痰而不渴 此腎水虛寒坎中無氣 而冷燥也

裏熱燥症

肺爲金 金水相生 金爲衆火所燥 則 水竅而燥 肺與大腸相表裏 肺燥則大腸無不燥之理 所以現大便秘結 難解 堅澁 或 如羊糞胸膈痞滿 不思飲食 或嘈雜吞酸 肌膚皴揭 筋縮瓜結疥癬 乾癩種 裏燥之症也

15. 張氏醫通¹⁵⁾

夫燥有臟腑之燥 有血脈之燥

燥在上必乘肺經 故上逆而咳

風熱心煩 脾胃熱壅 食不下

積熱煩渴 日晡轉劇 喘咳面青 能食便秘

燥於下必乘大腸 故大便燥結 然須分 邪實 津耗

血枯 三者爲治

邪實則 大煩渴 躁悶腹脹

大腸風秘血燥

津耗者 屢欲便而不可得 圍欲了而不了 便出仍是大塊

血枯者 口逆食不下 大便日漸 燥結如栗

燥在血脈多見風症

燥有內外諸症 在皮膚則 毛焦皺揭

在大腸則 脾約便難 在肺經則乾咳痰結

在肺藏則 悲愁欲哭 證雖各異 而脈之微細澁小

16. 溫病條辨¹⁶⁾

秋燥

○ 秋感燥氣 右脈數大 傷手太陰氣分者 桑杏湯主之

(譯註) 證見右手脈象數而大 頭痛發熱 咳嗽少痰 口鼻乾燥 口渴 舌質紅苔白 是一般秋燥的主要脈證 是由于燥邪侵襲于肺 燥熱熏灼 手太陰氣受傷所引起的 病變

○ 燥傷肺胃陰分 或熱或咳者 沙麥冬湯主之

(譯註) 感受燥氣較重 或初起衛分 亦能劫傷肺胃陰分 所以出血 發熱或乾咳 等 津液枯燥證狀 當用沙麥冬湯 甘寒救津

○ 燥氣化火 清竅不利者 翹荷湯主之

(譯註) 燥氣化火 上犯清空 致清竅不利而出現兩耳鳴 兩眼發赤 邪衄腫脹 咽中痛等症 用翹荷湯 清上焦氣分 燥熱

○ 燥淫傳入中焦 脈短而澁 無表證無下證 胸痛 腹脇脹痛 或嘔或泄 苦溫甘辛以和之

(譯註) 燥氣侵襲 肺衛不解 傳入中焦 出現的 脈象短而澁 短爲金 澁爲燥 是秋燥本脈

○ 燥氣延入下焦 搏于血分而成癥者 無論男女 化癥回生丹主之

(譯註) 感受燥氣 延久不解 傳入下焦 與血相搏 堅結不散 形成不移動的在腹外部 可以摸到的

硬塊的 不論男女都可用化癥回生丹主之

○ 燥氣 久伏下焦 不與血搏 老年八脈空虛 不可以化癥回生丹者 復亨丹主之

○ 燥久傷及 肝腎之陰 上盛下虛 晝冷夜熱 或乾咳 或不咳 甚則瘵厥者 三甲復脈湯主之 定風珠亦主之

(譯註) 感受燥氣 日久不愈 損傷於肝腎的陰液 以致水虧火亢 型成上盛下虛的局面 呈現白天不發熱而夜里發熱 有的乾咳 有的沒有咳嗽 嚴重的可因水不涵木 肝風內動 發生瘵變抽搐 四肢厥逆

17. 溫病合編¹⁷⁾

秋燥大綱

內傷外感宜分

外感者 由于天時風熱過勝 或因深秋偏方之邪 必傷上焦 手太陰氣分 右脈數大 或熱或咳 燥氣化火 清竅不利 如 耳鳴 目赤 衄腫 咽痛之類

內傷者 及人之本病 精血下奪而成 或因偏餌燥藥所致 病從下焦陰分

18. 醫原¹⁸⁾

燥氣論

其病有外感 內傷之因, 寒燥 熱燥之以, 傷人氣分 血分之次第深淺, 皆辨之不可不早辨也。外感之燥 首傷上焦氣分 氣分失治 則延及血分; 內傷之燥 乃人之本病 由於精血下奪而成 或因偏餌燥藥所致 病從下焦陰分先起 下焦失治 則槁及乎上 喘咳 痿厥, 三消 噎膈之萌 總由於此

19. 惠庵醫方¹⁹⁾

燥因血少

燥於外則皮膚癢痒 燥於中則精血枯涸 燥於下則尿結閉 燥於上則咽鼻焦乾

20. 溫病學²⁰⁾

秋燥

秋季因感受燥氣病邪而發生的外感疾病 總稱為秋燥

秋秋季燥氣主令 人若正氣有虧或起居不慎 即可感受燥邪而致病 但燥氣偏寒偏熱的不同屬性 因而秋燥病也 就有溫燥與涼燥 兩種類型

一. 涼燥犯肺

(原因) 秋深初涼 西風肅殺 適感內燥而發病

(症狀) 初起頭痛身熱 惡寒無汗 鼻鳴而塞 狀類風寒 惟唇燥咽乾 乾咳連聲 胸滿氣逆 兩脇竄痛 皮膚乾痛 脈右浮澁 左弦緊 舌苔白薄而乾

二. 溫燥傷肺

(原因) 秋深久晴無雨 天氣溫燥 遂感其氣而發病

(症狀) 初起頭痛身熱 乾咳無痰 即咯痰多稀而粘 氣逆而喘 咽喉乾痛 鼻乾唇燥 胸滿脇痛 心煩口渴 脈右浮弦 左弦澁 舌苔白薄而乾 邊尖俱紅

21. 中醫臨床大全²¹⁾

秋燥

秋燥乃因感受秋季時令燥氣 臨床表現特點初起 即有咽乾 鼻燥 乾咳小痰 皮膚乾燥 等 症狀 有涼燥溫燥的不同

一. 燥邪上受 應于肺

燥燥氣內應于肺 故其傷人 多從口鼻而入 重點在上焦肺經 燥邪入侵 外則衛氣失和 內則肺氣失宜 與一般外感相似 故秋燥初起 同可見邪襲肺衛的一般外感表證 所不同者 因燥易傷津 尚有“燥勝則乾”的病機特點 肺與大腸相表裏 常有因肺燥津液不布而致大便乾結難行者

二. 燥邪內傳腸燥

燥邪內傳中焦 結于陽明大腸 津液被灼 氣滯傳導失司 可見便秘 腹脹甚或 身熱神昏等 此與風溫邪傳中焦大致相似 只是本病具有較明濕的津液乾燥的現

22. 國譯 醫學基礎理論問答²²⁾

臨床上常見的燥證有

(1) 溫燥

是因為在初秋感受 外界的 燥邪而發病 故又稱

外燥 在初秋由于氣候的 特點是乾燥 加之初秋時節尚有夏火的餘氣 所以 患病後證見發熱 微惡風寒 頭痛 少汗 口渴 心煩 鼻乾 咽燥 乾咳 少痰 或痰中帶血 咳而不爽等 一派類似上呼吸道感染 或感冒的 證候 中醫稱爲溫燥

(2) 涼燥

也屬於外燥 多發生于深秋 由于深秋的 氣候既有空氣中 缺乏水分的特點 又有近冬之寒氣 所以此時期若感受外邪而患病 見惡寒 發熱 無汗 頭痛 等 類似秋天風寒感冒的證候 但反兼見一派燥象 如乾咳無痰 口鼻乾燥等證 即稱爲涼燥

(3) 內燥

是每因熱盛津傷 或汗吐下後而致的 津液傷亡 或失血過多 或久病精血內耗等 原因引起一派津虧與液耗的表現 證見口乾咽燥 皮膚乾澀粗糙 毛髮乾枯不榮 肌肉消瘦 小便短少 大便乾結等證

23. 中醫病理²³⁾

1) 外燥證

燥邪傷人 多及肌表 肺衛 以傷肺衛之主 病有偏涼偏熱之不同 故傷爲涼燥 溫燥兩類

(1) 涼燥證

燥燥與寒相合而成 燥傷津液 寒傷衛氣 故見發熱惡寒 頭痛 無汗 口乾咽燥 咳嗽少痰難出 舌苔薄白而乾 證似傷寒 但以津傷液燥爲特證

(2) 溫燥證

是燥與熱相合 却津的液所成 症見發熱 微惡風寒 頭痛, 少汗, 乾咳無痰 或咳而不爽 痰粘滯 咳引胸痛 甚則咯血 鼻咽乾燥 口乾心煩 舌尖邊紅 證似溫熱傷津 但以熱證較輕 津傷較甚爲特證

2) 內燥證

是臟腑津液不足 陰虛血少所成 上見于肺 胃和大腸 津液內乏 臟腑失却濡養 陰津不足 虛火內起 以津傷乾燥爲本 火熱爲標 症見 心煩 口乾 欲飲 便秘 乾咳 等

24. 中醫病因病機學²⁴⁾

內燥病機

內燥傷津也 有燥熱與冷燥之分 燥熱的病機變化主要是燥從熱化 火熱內熾 津液被劫 冷燥則是陽氣虛虧 陰寒中生 以致津液無以化生 且陽虛必致津液不能蒸 騰以布養全身上下 而寒主收引 津血得寒則凝 是故使肌膚筋脈失于滋養濡潤 也可表現出一派乾燥症狀

陰虛血燥, 素稟陰虛 或久病 大病 陰虧未復者 多有津血匱缺 肌膚臟腑失于滋營 以致于燥不潤的病理

津枯腸燥的病理多由素體陽盛 或嗜飲酒漿 過食辛辣厚味 致腸中積熱, 或熱病之後, 餘熱留戀 腸中燥熱 灼傷津液 腸道失于濡潤 以致傳導障礙 而大便燥結 難解

血液虧虛 津枯腸燥白病理 多因勞倦內傷 或病後 產後 體虛未復 或老年體衰 氣血虧虛所致 五臟內燥是因 七情過激 致五臟精血津液虧耗的病理變化

25. 外感熱病診治²⁵⁾

燥有內外之分, 內燥多爲內傷 津血乾枯之證 外燥則屬於外感秋令燥邪

秋燥의 診斷療法

1) 發生于秋季的外感熱病

2) 初起時除見有一般肺衛見證外 必須伴有咽乾 鼻燥等 燥傷津液的 症候

3) 本病病變的重心在肺 其次在胃腸 病位較淺 得少傳變

26. 東醫生理學 講議²⁶⁾

<內外涼溫燥>

燥邪致病 又有涼燥溫燥之別 乃因寒熱之氣所化而成 寒搏者寒即水液凝結 致津液不能輸布濡潤 而成燥稱爲涼燥 乃因兼有近冬之寒氣使然(深秋又之近冬之寒氣 燥與寒邪結合侵犯人體 故有時亦見 涼燥病證)

火熱即消灼津液而成燥 又稱溫燥 乃由兼有夏熱之餘炎而致 (初秋有夏熱之餘氣 燥與溫熱結合而侵犯人体即多見溫燥病證)

27. 黃帝內經類釋²⁷⁾

燥氣秋季主氣 如燥氣太過 人感之爲病稱爲外燥 因病後 或生活失攝致 體內陰液不足 而化燥者 稱爲內燥

外燥進一步爲溫燥和涼燥

28. 東醫內科 症狀의 鑑別과 治療²⁸⁾

外燥證

外燥證은 주로 몸 곁에 병적소견이 나타나는 것으로서 일반증상은 피부가 거칠고 마르며 가렵고 아프다. 심하면 피부가 갈라지거나 고기비늘모양(피부갑착증)이 된다.

① 溫燥 : 초기에 머리가 아프면서 열이 나고 입안이 마르며 마른기침을 한다. 혀는 붉고 부삭한 때가 많다. 초가을에 조사를 받을때 잘 생기는 데 열증상이 우세하다.

② 涼燥 : 초기에 머리가 아프고 오싹오싹 춥고 열이 나며 땀은 없고 코가 멘다. 입술과 목이 마르고 마른 기침이 나며 맥은 긴하거나 삼하다. 늦가을에 조사를 받을 때 잘 생기는 데 찬 증상이 우세하다.

內燥證

內燥證은 몸안의 진액이 부족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조증과 비슷하나 실제로는 陰虛證의 범주에 속한다. 內燥는 흔히 열병을 앓을 때, 몹시 게우고 설사할 때, 피와 땀을 지나치게 흘릴 때, 약을 잘못 썼을 때 생길 수 있다. 주요증상은 陰虛證의 내열증상과 함께 피부가 마르고 거칠며 손톱이 부서지고 빠진다. 머리털은 윤기가 없고 혀와 혀이끼가 마르며 맥이 삼하고 변비가 있는 것등 陰血不足 증상이 나타난다. 상초가 조하면 목안과 코안

이 몹시 마르고 하초가 조하면 대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다.

Ⅲ. 考察 및 總括

燥는 六氣의 하나로 가을의 主氣이며 五行上 金에 屬한다. 內經 이래로 風寒濕 三氣는 病因으로 主要하게 다뤄져왔으나 燥는 風寒濕과 같이 생활환경으로서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重要的 比重을 차지하기 못하여 主要病機에서도 빠져있었다.

그러나 素問¹⁾에서 “歲金太過 燥氣流行…”으로 燥氣의 존재를 밝혔고, 그 證狀은 “燥勝則乾”이라 하였는데 類經²⁾에서 “燥勝者 爲津液枯涸 內外乾燥之病”이라 하여 燥가 勝하여 津液이 마르고 人體 內外가 乾燥한 病이 된다고 하여 燥病은 自然界의 乾燥한 現狀과 類似한 證狀이 人體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素問¹⁾에서는 “腎苦燥 急食辛以潤之”라 하였는데, 이것은 辛溫한 藥物로 裏寒을 治療하여 治燥하는 裏寒燥의 關係를 設定하였다. 그러나 아직 燥의 區分이 확실히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劉³⁾는 燥病의 原因을 消渴論에서 火熱로 보아 內因을 重視하였다.

朱⁴⁾는 燥金이 熱을 받으면 燥澁을 이룬다고 하였고, 燥結門에서는 風寒邪가 外部에서 入하거나 七氣火가 內部에서 일어나는 것, 病이 日久하거나, 나이가 많은 것 등을 原因으로 보아 外因과 內因을 함께 다루었다.

王⁵⁾은 內因을 더욱 重視하여 大病, 克伐太過, 吐利, 金石之藥의 過多服用, 房勞過多, 飲食厚味 등으로 眞陰을 傷하여 血液이 衰耗되어 燥證이 發한다고 하였다.

徐⁶⁾는 大便秘結이나 消渴은 燥病의 裏證이고 身熱, 皮膚燥澁乾乾는 燥病의 表證이라 하여 表證과 裏證으로 나누어 보았고, 方⁷⁾은 風熱을 原因으로 보아 陽實陰虛하면 風熱이 甚

해서 燥가 發한다고 하였고 血이 火熱로 因하여 傷하면 部位別로 病이 나타나는데, 外에 있으면 皮膚皴揭, 上에 있으면 咽鼻焦乾, 中에 있으면 煩渴, 下에 있으면 便難, 手足에 있으면 痿弱無力, 脈에 있으면 細澁而微한다고 하였다.

虞⁸⁾는 風筋緩者는 風熱이 勝濕하여 燥가 甚해진 것이라 하여 中風과 燥를 연관시켜 보았고, 李⁹⁾는 燥에 內外가 있으니 外因은 陽明燥金, 久晴不雨, 黃埃, 蔽空令人狂惑, 皮膚乾枯屑起하고 內因은 七情火盛 或 大病, 吐利, 或 金石燥血 或 房勞竭精, 或 飢飽勞逸損胃 或 炙燻酒醬厚味로 火邪를 도와 血液을 消燥한 것이라고 하였다.

徐¹⁰⁾는 燥가 본래 內因과 聯關되어 水不涵肝하면 燥氣가 筋脈에서 發生하고 血不榮經하면 燥證이 形軀에서 보이니 風燥, 寒燥, 火燥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비록 外因에 屬하더라도 역시 內厠로 經藏을 滋榮하지 못하는 것과 關聯된다고 하여 內因을 重要時하였다. 喻¹¹⁾는 燥勝則乾한데 그 病位는 上下中外前後가 각각 다르고 乾이 外에 있으면 皮膚皴揭하고 內에 있으면 精血枯涸하고 津液에 있으면 營衛氣衰한다고 하였다.

葉¹²⁾은 燥를 風傷과 外感으로 나누어, 外感은 天時의 風熱의 太過나 深秋의 偏亢된 邪氣가 人體의 上焦氣分을 傷한 것이고, 內傷은 人體의 本來의 病이 精血下奪과 燥劑를 過食하여 下焦陰分이 傷한 것이라 하였다.

姚¹³⁾는 中氣가 虛하고 形寒飲冷하고 더위에 火氣가 潛伏되면 膈中에 鬱쳐 津耗液盡하여 燥를 이룬다고 하였고 肺氣가 不輸되지 못하고 腸胃가 燥滿하여 不行하면 血의 下行을 막아 竭한다고 하였다.

劉¹⁴⁾는 본래 五臟의 生氣가 먼저 虛하여 精血을 化生하지 못하고 精血이 衰少하면 津液을 濟養하지 못하여 燥를 形成한다고 하였다. 또한 燥症을 表裏寒熱로 나누었는데 表寒燥症은 血이 氣寒으로 凝滯되고 液이 氣寒으로 燥하여 發生하는데 그 證狀은 皮膚乾皴 指甲斷

裂 形神枯槁하다고 하였고, 表熱燥症은 血枯風熱로 金燥液渴하여 發生하고 그 證狀은 皮膚皴裂, 搔之屑起, 血出痛楚指甲厚折, 肌肉乾勁筋急拘攣이라 하였다. 또한 裏寒燥證은 腎水가 虛寒하여 冷燥가 되니 그 症狀은 大便秘結, 喜溫熱之物, 小便清長, 面紅不熱, 氣促有痰而不渴한다 하였고, 裏熱燥證은 金生水인 水窮이 燥하고, 肺燥로 表裏臟腑인 大腸이 燥하여 大便秘結難解하고 大便이 羊糞과 같거나 胸膈痞滿, 不思飲食, 或 嘈雜吞酸, 肌膚皴揭, 筋縮似結疥癬乾癩腫 등이 發生한다고 하였다.

張¹⁵⁾은 燥를 臟腑의 燥와 血脈의 燥로 나누었고, 燥가 上에 있으면 반드시 肺經에 침입하여 上逆而咳하고 燥가 下에 있으면 반드시 大腸에 침입하여 大便燥結한다고 하였다.

또한 邪實, 津耗, 血枯로 나누어 邪實하면 大煩渴, 躁悶, 腹脹하고 津耗하면 大便을 보고 자하나 不便하고 血枯하면 嘔逆 食不下하고 大便이 점점 栗처럼 燥結한다 하였다. 또한 燥에는 內外諸症이 있다고 하여 皮膚에 있으면 毛焦皴揭하고 大腸에 있으면 脾約便難하고 肺經에 있으면 乾咳痰結하고 肺臟에 있으면 悲愁欲哭하는데 燥가 어디에 있건 脈은 微細澁少하다고 하였다.

吳¹⁶⁾는 外感인 秋燥에 대하여 매우 詳細히 記述하여 秋에 燥氣에 感受되면 手太陰氣分을 傷하여 右脈數大, 頭痛發熱, 咳嗽少痰, 口鼻乾燥, 口渴, 舌質紅苔白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秋燥의 重要 脈證이라 하였다.

또한 秋燥는 初期에는 衛分에 入하나 肺胃陰分을 却傷하여 出血 發熱 或 乾咳 등의 津液枯燥證을 일으킬 수 있고 燥氣化火하면 清竅를 침범하여 耳鳴, 兩眼發赤, 齒齲腫脹, 咽痛 등을 일으키며, 燥氣가 中焦에 傳入하면 脈이 短而澁하고, 燥氣가 延久不解하여 下焦로 入하면 血과 相搏하여 癥을 이룬다고 하였고, 燥氣가 下焦에 久伏하면 燥氣가 日久하여 八脈이 空虛해지고 肝腎之陰을 傷하면 上盛下虛하고 晝冷夜熱하고 乾咳가 있거나 或 不咳한다고 하였다.

石은 溫病合篇¹⁷⁾에서 秋燥는 內傷과 外感이 있으니 外感은 天時의 風熱이 過勝하거나 深秋의 偏亢之邪로 반드시 手太陰氣分을 傷하여 右脈이 數大하거나 發熱, 咳하고 燥氣가 火로 化하여 清竅가 不利해져 目赤, 耳鳴, 衄腫, 咽痛 등의 證狀이 나타나고, 內傷은 人體의 本病이 精血不奪하거나, 燥藥을 過用하여 病이 下焦陰分을 따른다고 하였고, 醫原¹⁸⁾에서는 燥病을 原因에 따라 外感和 內傷으로 나누어 寒燥와 熱燥를 區分하였다.

崑¹⁹⁾는 燥는 血少에 기인하여 燥가 外에 있으면 皮膚搔痒, 中에 있으면 精血枯涸, 下에 있으면 便尿結閉, 上에 있으면 咽鼻焦燥한다고 하였다.

《溫病學》²⁰⁾에서는 秋燥는 가을에 燥氣에 感受되어 發生하는 外感疾病을 總稱한다고 하였고 그 原因은 人體의 正氣가 虧虛하거나 起居不慎하여 燥邪에 感受된 것이라 하였다. 또한 燥氣의 偏寒偏熱을 나누어 涼燥와 溫燥로 나누었는데 涼燥는 風寒의 증상외에 脣燥咽乾, 乾咳連聲, 胸滿氣逆, 兩脇竄痛이 있고 溫燥는 頭痛身熱 등의 증상외에 咽喉乾痛, 鼻乾脣燥, 心煩口渴 등의 證狀이 있다고 하였다.

楊²¹⁾은 肺와 大腸이 表裏關係이므로 肺燥하면 大便乾結한다고 하였고, 王²²⁾은 燥病을 溫燥, 涼燥, 內燥로 分類하였다.

賴²³⁾은 外燥와 內燥로 나누고 外燥는 다시 偏寒偏熱에 따라 涼燥와 溫燥로 나누었는데, 涼燥는 燥와 寒이 相合하여 燥傷津液, 寒傷衛氣하여 傷寒과 類似한 證候가 發生하나 津液이 乾燥한 特徵이 있고, 溫燥는 燥와 熱이 相合하여 津液을 傷하여 發生하는데 단 熱症이 비교적 輕하고 傷津의 證狀이 甚한 것이 特徵이다. 內燥證은 肺, 胃, 大腸에서 보이며 心煩, 口乾, 欲飲, 便秘, 乾咳 등의 證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宋²⁴⁾은 內燥에도 燥熱과 涼燥의 區分이 있는데 燥熱의 變化는 燥가 熱化하여 火熱內熾하고 津液被劫하는 것이라 하였고 涼燥는 陽氣가 虛虧하고 陰寒하여 津液이 化生됨이 없

으니 대개 陽虛하면 반드시 津液이 全身上下에 輸布되지 못하고 寒主收引하니 津血이 得寒하면 凝結되어 肌膚筋脈을 滋養하지 못하여 乾燥症狀이 發한다고 하여 역시 內燥에도 寒, 熱의 區分이 있다고 하였다.

梁²⁵⁾은 燥에는 內外的 區分이 있는데 內燥는 內傷이 되고 津血乾枯한 證狀이 있고 外燥는 秋金의 燥邪에 感受된 것인데 그 중 秋燥의 診斷要點은 첫째, 秋季에 發生한 外感熱病들째, 初期에는 一般의 肺衛가 傷한 證狀이 나타나나 반드시 咽乾, 鼻燥 등의 燥傷津液의 證候가 있고 셋째, 본래 病의 中心이 肺에 있으나 다음은 胃腸에 있다고 하였다.

류²⁶⁾는 涼燥는 늦가을에 겨울의 寒氣와 가을 때 燥와 寒이 結合하여 人體에 侵犯하는 것이고 溫燥는 여름의 熱氣가 남아 있을 때 燥와 溫熱이 結合하여 人體에 侵入한 것이라 하였다.

민²⁷⁾은 外燥와 內燥로 나누었는데, 이 중 內燥證은 실제로는 陰虛證의 範疇에 속한다고 하였는데 證狀에서 陰虛의 內熱症狀과 함께 陰血不足症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燥證은 內因의 要因이 重視되었으나 明 이후 清代의 溫病學派에 의해 外因이 重視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內因이 原因인 燥病은 內燥, 外因이 原因인 燥病은 外燥로 할 수 있으며, 또한 內·外因 각각에는 寒·熱이 있어 內燥는 燥熱과 涼燥로, 外燥는 溫燥와 涼燥로 나뉘볼 수 있었다. 內燥의 燥熱은 主로 大病後·吐利後, 燥性 藥材의 過多服用 등의 精血 下奪, 陽實陰虛이었고, 涼燥는 陽氣虛虧, 腎水 虛寒한 것이 主原因이었다.

外燥는 主로 時期·季節과 關係하는데 초가을에 秋의 燥氣가 여름의 溫氣와 結合하여 溫燥가 되고, 늦가을에는 겨울의 寒氣와 結合하여 涼燥가 된다.

證狀으로 內燥는 燥熱에서 主로 大便燥結, 心煩, 口渴, 咽乾鼻燥, 皮膚乾燥 등의 陽實陰虛, 陰虛血燥한 證狀이 主로 나타나고, 涼燥는

大便秘하나, 喜溫熱飲하고, 小便清長, 面紅不熱, 氣促有痰而不渴하는 것이 다른 점이었다. 外燥中 溫燥는 頭痛, 發熱, 惡風寒의 外感症狀에 咽鼻乾燥, 口乾心煩, 舌尖紅 등의 證狀이 있으나 熱症은 甚하지 않으며 津傷한 證狀이 特徵이고, 涼燥는 頭痛, 發熱, 惡寒 등이 傷寒과 類似하나 口鼻咽燥, 咳嗽少痰, 舌苔薄白而乾 등의 津傷液燥 證狀이 特徵이다.

Table 1. 燥病의 概括的 分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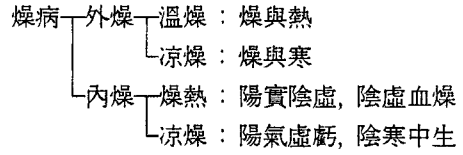


Table 2. 燥病의 內·外因의 分類

	內 因 (內燥)	外 因 (外燥)
劉河間	火熱	
證治準繩	大病, 克伐太過, 吐利, 金石之藥過用, 房勞過多, 飲食厚味	
奇效良方(醫學正傳)	內熱, 陽實陰虛	
醫學正傳	內熱	
臨証指南醫案	精血下奪, 燥劑過用	天時的 風熱太過 深秋偏亢之邪
名醫類案	中氣虛, 形寒飲冷	
徐靈胎醫書全集	水不涵肝, 內潤	
醫學入門	七情火盛, 大病吐利, 房勞竭精, 飢飽勞損胃, 炙?酒醬厚味	陽明燥金, 久晴不雨, 黃埃, 蔽空令人狂惑, 皮膚乾枯屑起
溫病合篇	精血下奪, 燥藥過用	天時的 內熱過勝 深秋의 偏亢之邪
溫病條辨		秋에 燥氣에 感受
惠庵醫方	血少	
證治百問	五臟先虛, 不能化生精血, 腎水虛寒坎中無氣	
外感熱病診治	津血乾枯	外感秋今燥邪
中醫病理	臟腑津液不足 陰虛血少	燥寒이 結合해 燥傷津液, 寒傷衛氣
中醫病因病機學	燥가 熱化, 陰虛血少, 津枯腸燥	
동의내과 증상의 감별과 치료	熱病 後 吐하고 泄瀉 피와 땀을 지나치게 흘릴 때 약을 잘못 썼을 때	초가을, 늦가을에 燥邪를 받아 發生

Table 3. <燥病의 分類와 證狀>

外 燥		
症 狀	溫 燥	涼 燥
	發熱, 微惡風寒, 頭痛, 少汗, 乾咳無痰, 或咳而不爽, 痰粘滯, 咳引胸痛, 甚即咯血. 鼻乾咽燥, 口乾心煩, 舌尖邊紅(證似溫熱傷津 但熱證較輕, 津傷較甚)	發熱惡寒, 頭痛, 無汗, 咳嗽少痰難出, 口乾咽燥, 舌苔薄白而乾, 鼻燥(證似傷寒 但 津傷液燥爲特證)
	脈은 浮數한 때가 많다. 皮膚가 거칠고 마르며 가렵고 아프다	脈은 緊하거나 澁하다. 皮膚가 거칠고 마르며 가렵고 아프다.
清竅不利而耳鳴, 目赤, 齧痛, 咽痛. 胸滿脇痛, 脈右浮澁, 左弦澁	胸滿氣逆, 兩脇竅痛 脈右浮澁 左弦緊	
內 燥		
症 狀	燥 熱	涼 燥
	大便秘結, 欲飲如羊糞, 胸膈痞滿, 口乾咽燥, 皮膚乾澁粗糙, 毛髮乾枯不榮, 肌肉消瘦, 小便短少, 不思飲食 或 嘈雜吞酸, 筋縮收結 疥癬, 心煩, 乾咳, 혀와 혀 이끼가 마르고 脈이 澁하다.	大便秘結 難解 及 解而不甚, 燥硬喜食, 溫熱之物, 小便清長, 面紅不熱, 氣促有痰而不渴

Table 4. 燥病의 部位別 證狀

燥 在	部 位	證 狀
	外	皮膚皴揭 皮膚瘙痒
	內	精血枯涸
	上	咽鼻焦乾 上逆而咳
	中	煩渴 食不下
	下	腸胃枯涸 便尿結閉
	手足	痿弱無力
	大腸	脾約便難
	肺經	乾咳痰紅
	肺藏	悲愁欲哭
	血脈	多見風症
	津液	營衛氣衰
脈	細澁而微	

IV. 結 論

1. 燥證은 그 原因에 따라 內燥, 外燥로 나눌 수 있고, 內燥는 다시 寒熱에 따라 燥熱과 涼燥로 外燥는 溫燥와 涼燥로 나눌 수 있다.
2. 內燥의 原因에서 燥熱은 大病 後, 吐利 後, 燥熱之藥過用 등으로 인한 陽實陰虛가 主要原因이고, 涼燥는 陽氣虛虧, 腎水虛寒이 主要原因이다.
3. 外燥의 原因은 溫燥는 燥氣와 溫氣, 涼燥는 燥氣와 寒氣이다.
4. 內燥의 證狀은 燥熱은 大便秘結, 心煩, 口渴, 咽鼻乾燥, 皮膚乾燥 등의 陽實陰虛, 陰虛血燥, 涼燥는 大便秘하나 喜溫熱飲, 小便清長, 面紅不熱, 氣促有痰而不渴하는 것이 特徵이다.
5. 外燥의 證狀은 溫燥는 頭痛, 發熱 등의 外感證狀에 鼻乾咽燥, 咳嗽帶血, 舌尖紅 등의

津傷液燥 證狀이 있으나, 熱症이 甚하지 않는 것이 特徵이고, 涼燥는 頭痛, 發熱, 惡寒 등의 傷寒 證狀에 口鼻咽燥, 咳嗽少痰, 舌苔薄白而乾 등의 津傷한 證狀이 特徵이다.

參考文獻

1. 楊維傑 : 黃帝內經素問 , 台聯, 國風出版社 : p.195, 533, 1976.
2. 張景岳 : 類經, 서울, 大星文化社, p.37, 1982.
3. 劉河間 : 素問玄機病原式 (劉河間傷寒三六書), 서울, 成輔社 : p.286, 1976.
4. 朱震亨 : 新編 丹溪心法附與, 서울, 大星文化社, p.501, 514, 1993.
5. 王肯堂 : 證治準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33, 1991.
6. 徐春甫 : 古今醫統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808, 1991.
7. 方賢 : 奇效良方, 香港, 商務印書館, p.120, 1977.
8. 虞博 :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 p.77, 1986.
9. 李梴 :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p.318, 1990.
10. 徐靈胎 : 徐靈胎醫書全集, 台北, 五洲出版社, p.15, 1981.
11. 喻嘉言 : 醫門法律, 中國, 江西人民出版社, pp.522-523, 1984.
12. 葉天士 : 臨證指南醫案, 서울, 翰林社, pp.363-365, 1982.
13. 姚若琴, 徐衡之 : 宋元明清名醫類案, 中國, 上海書店出版, p.121, 123, 1988.
14. 劉默 : 證治百問, 서울, 醫聖堂, pp.61-67, 1994.
15. 張璠 : 張氏醫通, 서울, 一中社, pp.46-47, 1992.
16. 吳鞠通 : 溫病條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66-73, 1986.
17. 石壽棠 : 溫病合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pp.72-73, 1985.
18. 石壽棠 : 醫原, 서울, 醫聖堂, p.114, 1983.
19. 吳得泳 : 惠庵醫方, 서울, 醫藥社, p.201, 1978.

20. 南京中醫學院編 : 溫病學, 中國,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99-101, 1978.
21. 楊思澍 外 3人 : 中醫科學技術出版社, pp.47-
22. 王志善, 朱海王 : 國, 서울, 大成出版社, pp.25-
23. 賴疇 外 2人 : 中醫病理出版社, p.301, 1987.
24. 宋鷺泳 : 中醫病因病機出版社, pp.309-310, 1987.
25. 梁運通 : 外感熱病診治 pp.187-188, 1994.
26. 류도곤 : 東醫生理學講義校出版局, p.210, 215, 1990.
27. 梁運通 : 黃帝內經類釋, p.276, 1986.
28. 민순실 : 동의내과증상의 급급한 치료, 서울, 驪江出版社, pp.32-33, 1992.
29. 최승훈 : 내경병리학, 서울, 통나무, pp.134-135, 1995.